



전북도, 이달의 좋은 간부 주인공 2명 선정

전북도 김추철 축산과장과 이정석 일자리경제정책관이 '이달의 좋은 간부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4월에는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주인공 2명을 선정했다.

먼저, 김추철 축산과장은 라떼&폰데 문화 첼레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팀별 타타임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줄 뿐 아니라, 축산업 관련 유관단체와 업무추진에 있어 화합과 상생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임해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전북도의 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영어 네네임을 사용하고,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세대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회의 최소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김추철 축산과장은 "전북도 축산 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 온 저의 직원분들이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근무하기 좋은 사무실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 유연하고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읍시, 농산물가공 맞춤형 교육 자선감 '썩썩'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산물가공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산물가공 실무 맞춤형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단풍대인대학 농산물가공과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가공에 관한 전문 지식 함양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가공식품 유통을 하면서 부딪치는 실무사례 소개와 질의응답,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 농식품 가공 창업의 설립조건과 인허가 절차, 가공 창업 세무·회계,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식품가공기술의 이해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진행돼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해 지역의 농산물 가공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지사보험 2022년 1차 정기회의 개최

부안읍(읍장 김남철)은 지난 28일 2022년 1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추진 현황과 2022년 하반기 추진 방향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안 및 복지사각지대로 적극 발굴하기 위한 민관협력 도모 방법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재희 민간위원장은 "우리의 관심이 소외된 이웃에게 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지는 부안읍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위원장인 김남철 부안읍장은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부안읍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부안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성진 기자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부

농업인학습단체, 약 1억원 지자체·농업기술원에 전달

강원·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 4개 농업인학습단체가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한국4-에이치(H)본부(회장 방덕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강현옥)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회장 지준호)가 각각 자발적으로 모금한 총 1억 여원의 성금을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전달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한국4-에이치본부와 한국4-에이치중앙연합회는 성금 2500만 원을 강원도농업기술원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을 통해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전달했으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성금 6800만 원을 울진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총 1,000



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강원도농업기술원과 울진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지준호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려는 회원들의 마음이 전달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여자축구 신동 한국희, 엄마의 밥상에 성금 기부

울산현대 청운중 U-13 한국희 선수가 지난 4월 29일 전주시정신을 찾아 제34회 차범근 축구상 최우수 여자선수 상으로 선정돼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전주시 엄마의 밥상에 기부했다.

2016년 전북현대 유소년 축구단을 시작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한국희 선수는 지난해 전북 축구협회장배에서 우승했고, 또 골든킥은 1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개최된 22년 춘계한국 여자축구 연맹전에서 현대청운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전국 최강팀으로 우승했으며 한 선수는 최다득점상을 수상했다.

한 선수는 지난해 광고 수익금으로 받은 10만 원을 전주시 엄마의 밥상에 기부하며 이어 올해에도 수상한 상금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국희 선수는 "자신의 기량으로 받은 상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게 보람있으며,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성장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대 의대 동문부부,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박인숙 서울영양과학과리원 원장과 김원호 교수(내과학교실 심장내과) 부부가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북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대 의대 8회 동문이다.

이에 전북대 의대는 지난 4월 28일 박 원장 내외를 대학에 초청해 입학식 학생과 권근성 교무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을 가졌다.

박인숙 원장은 "전북대 의대의 50년 역사를 곱씹으며 대학을 둘러보니 학창시절의 많은 추억이 떠오르고, 모교가 세기에 우뚝 설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의대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호 교수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함께 다져 온 의학 50년 역사가 자랑스럽다"며 "전북대대가 지역거점을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입학식 학생을 비롯한



후배 교수들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학식 학장은 "평소에도 꾸준히 후배들을 위해 후원하면서 이렇듯 발전기금까지 기탁한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불교 평화교당, 평화2동 소외계층에 백미 전달

원불교 평화교당(교무 서경연)은 원불교 대가교절을 맞아 지난 29일 평화2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애)를 방문해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전달해달라며 백미 10kg 30포를 기탁했다.

원불교 평화교당 서경연 교무는 "원불교 열린날인 대가교절을 맞이하여 평화2동 이웃들을 위하여 백미를 준비했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한 이 백미를 통하여 훈훈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불교 평화교당은 매년 대가교절날 평화2동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백미를 기부해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효자5동, 한끼나눔 밀반찬 지원 사업 스타트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동장 김수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순식)는 '든든한 한끼 나눔, 밀반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밀반찬 지원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넷째주 목요일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15세대에 영양가득한 밀반찬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건강생활을 돕고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해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밀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장순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혁신동, 보건소 코로나 의료진·취약계층 간식 전달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주민센터(동장 이승순)는 지난 4월 2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일성)과 함께 '사랑의 머랭쿠키'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동 주민센터와 지사협 위원들은 ▲혁신동 취약계층 100세대 ▲덕진구청 코로나19 지원부서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직원들에게 머랭쿠키를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달된 쿠키는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6개 자생단체 회원들이 손수 만들었다.

또한 혁신동 소재 '커피공장'에서도 도넛 300개를 지원해 훈훈한 정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일성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관내 취약계층과 감염노동자를 위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순창소방서, 실종자 수색에 총력 기울여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28일 12시경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 왕자봉 인근에서 노인이 실종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색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모씨(71, 여)는 지난 27일 수요일 오전 10시경 강천산 왕자봉 주변에서 약초를 캐고 난 후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며, 인상착이는 키는 약 180cm이고 짧은 백발이며 보행은 정상이고 실종 당시 빨간후드에 검정바지를 착용하였다.

이에 순창소방서는 수색팀 인원 총 43명(소방장 2명, 의용소방대 15)와 장비 총 7대(소방차 6대, 드론 1대), 구조견 3두를 동원해 현재까지 수색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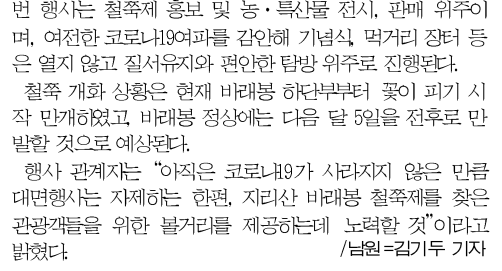
이길원 순창소방서장은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원 및 소방드론 장비 운용등 인명수색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제26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 개최

남원시 운봉읍은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25일간 운봉에할 주관으로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제26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쭉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으며, 이번 행사는 철쭉제 홍보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 위주이며, 여전한 코로나19여파를 감안해 기념식 먹거리 장터 등은 열지 않고 질서유지와 편안한 탐방 위주로 진행된다. 철쭉제 개회 상황은 현재 바래봉 하단부부터 꽃이 피기 시작 단계였고 바래봉 정상에는 다음 달 5일을 전후로 만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관계자는 "이제는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대면행사는 자제하는 한편,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버날 맞아 취약노인에 생필품 지원

전북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기관은 어버날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취약노인 블랙아트 후원을 받아 효(孝)박스(식생활용품 키트)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효(孝)박스 지원사업'은 식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효 문화 확산 장려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으며, 올해는 독거노인 노인종합지원센터와 블랙아트 캠페인 나눔재단의 후원을 통해 연계했다.

올해는 도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350명에게 식품과 생필품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생필품은 5월 2일(월)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일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